

# 간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종임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ng-Im Kim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일부 C시 지역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분석대상은 207명 이었다. 자료는 기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과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 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설명력은 26.2%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관련성에서는 셀프리더십은 학년과 성적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감성지능은 학년과 인터넷사용시간,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인터넷사용시간에서 차이가 있었고, 대학생활 적응에서는 학년에서 차이를 보였다. 대학생 활적응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셀프리더십, 감성지능은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간호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셀프리더십, 감성지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간호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과정인 셀프리더십과 감성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included 207 nursing college students in C City.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ased on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Self-leadership,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had significant effects on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life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26.2%. Moreover, relationships between stu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revealed differences in self-leadership according to grades and marks, in emotional intelligence according to the grades and hours on the internet, in academic self-efficacy according to hours on the internet, and in adjustment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grades. Adjustment to college life was high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leadership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short,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self-leadership and emotional intelligence had important effects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reveal a need to reinforce the development of programs designed to improve self-leadership and emotional intelligence to facilitate adjustment to college life.

**Keywords** : Academic self-efficacy, College Life Adaptation, Emotional intelligence, Nursing Student, Self leadership

---

\*Corresponding Author : Jong-Im Kim (Jungwon Univ.)

Tel: +82-43-830-8841 email: jikim17@jwu.ac.kr

Received February 19, 2018

Revised (1st March 8, 2018, 2nd March 28, 2018)

Accepted May 4, 2018

Published May 31, 2018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 대학생들은 간호사가 되고자하는 목표와 그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고 있으며[1], 이를 기반으로 변화하는 보건 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리더의 기술을 습득하여,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전문화된 간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성숙한 직업인으로 실질적인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이며[2], 이는 대학생활의 적응 정도에 따라 현재 생활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3]. 그러나 입시에만 매진해 오다 대학에 온 학생들은 친밀하고 효율적인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개발하지 못해 고립, 고독 등의 심리·정서적 혼란을 경험하며 대학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특히, 간호 대학생들은 간호학 전공의 전문지식 습득 외에도 임상실습 등 사회적 노출을 일찍 경험하며, 여러 가지 정신적·심리적인 문제나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5] 이러한 요인들이 간호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은 물론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임상현장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개념으로 간호 대학생들은 셀프리더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셀프리더십은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통제를 하는 자율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자기관리와 내적동기로 대학생 시기에 형성되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제시 된다[6]. 선행연구는 셀프리더십이 높아지면 자율성과 열정이 높아지고[7], 학과 만족도가 높아 책임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등 긍정적 영향을 주며[8], 간호역량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또한, 셀프리더십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목표달성의 자율적인 힘에 영향을 미치며[9], 취업전략이나 학업에 흥미를 더해 성과를 내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10]. 이에 스스로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판단과 차별화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간호 대학생도 셀프리더십이 필수요소로 요구되며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10].

이와 함께 감성지능은 자신의 감성에 대한 실체와 원인을 인식하고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상황에 적합한 감성으로 조절된 감성을 행동으로 표출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다[11]. 선행연구[12, 29]에서도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감성지능은 셀프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나타나고 있다.

대학생활 적응에 학업적 자기효능감 또한 영향을 미치고, 감성지능과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음을[3] 제시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원하는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13], 특정한 과제의 수행이나 학업성취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개인적 특성이며, 그 수행을 잘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되고 있다[13].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과제를 지속 한다고 한다[14]. 이에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관련 있는 성취 및 자기 결정성 동기 등은 긍정적인 정서 반응으로, 이는 높은 효능감을 느끼는 긍정적 순환[15]으로 이어져 삶의 만족과 행복감, 학업성취감과 관련성이 있는 대학생활 적응과 연관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대학생활 적응은 학생이 현재 대학에서 학업적, 생활, 행정적, 개인 활동 부분에서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인 충족 정도로 개개인의 심리적 요인 등에 따라 다르게[16] 나타난다. 이러한 적응력은 학업에 영향을 주며, 교수와의 관계, 자신의 문제 등에도 영향을 미치며, 대인관계, 친구관계 등이 좋지 않은 경우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17]. 이에 대학생활적응을 위해 대학에서는 상담센터 운영, 학부모 면담, 선. 후배 멘토·멘티 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공유를 하는 분위기와 풍토 이지만[18] 간호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의 심리, 정서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연관성을 탐색하고, 셀프리더십, 감성지능과 학업적 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보면 셀프리더십[3], 감성지능과 리더십[16], 학업적 자기효능감[9] 등의 관련성 연구와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각각의 개념에 대

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변인들 간의 통합적인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간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 ②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③ 셀프리더십,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기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부 지역 C시 소재 대학의 간호학과 1학년에서 4학년까지의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자와 연구 보조자가 함께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J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 설문을 진행하였다(IRB 승인번호:1044297-HR-201711-003-01). 자료수집 전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고, 연구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학생 전원을 조사하였으며, 연구자와 보조자가 해당 연구의 목적과 설문내용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기간동안 결석자, 외국유학생, 설문내용이 불성실하거

나, 응답하지 않은 것은 제외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수집된 자료는 220부였고, 그중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한 20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19]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기준으로 필요한 유의수준 .05, 효과의 크기 중간정도인 0.15, 예측변수 11개를 포함했을 때, 검정력 .95, 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178명이 요구 되어 설문지 미회수율 10%(17.8명)를 계산하여 더하여 본 연구대상자인 207명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2.3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일반적 특성,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감성지능, 대학생활 적응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변수로는 성별, 학년, 리더십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 인터넷사용시간은 인터넷 통제 정도와의 중독정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을 알아 볼 수 있는 것으로 인터넷사용시간으로 확인하였고, 동아리 활동여부, 형제자매 수, 직전 학기성적 등으로 구성하였다.

#### 2.3.1 셀프 리더십(Self leadership)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Manz[7]가 개발한 셀프리더십 측정도구(Self Leadership Questionnaire; SLQ)를 Kim[20]이 번안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소는 행동적 전략과 인지적 전략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3개 문항으로 문항별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행동적 전략의 하위영역은 목표설정, 자기보상, 연습 등의 3개 요인과 인지적 전략의 자언보상의 분별, 환경조성, 자언보상 활동도입, 일에 좋은 면에 초점, 내적 보상에 집중 등 5개 요인으로 총 8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5$ ,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7$ 였다.

#### 2.3.2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

감성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인지하고 정서를 구별하는 능력 및 정서적 정보를 통하여 사고와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며, 그를 토대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고,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21]. 본 연구에서는 Goleman이 개발하고 Chung[22]

이 사용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4개의 하위 요인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7$ ,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0$ 이었다.

### 2.3.3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계획된 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행동을 조직하고 실천 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학습자들의 신념을 의미한다[23]. 본 연구에서는 Kim[24]의 학업동기 척도 표준화 연구에서 사용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수준번호의 3개 하위요인으로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0$ ,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79$ 이었다.

### 2.3.4 대학생활 적응(College Life Adaptation)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측면에서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학교환경에 순응하거나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작하는 학생의 외현적, 내재적 행동을 의미한다[25]. 본 연구에서는 Kim[24]이 대학생활 적응 척도로 사용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교수관계, 교우관계 등의 2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지의 문항은 총 9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2$ ,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0$ 이었다.

## 2.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Duncan's test를 실시하였다,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대학생활 적응들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으며,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 학년, 인터넷사용시간, 동아리활동, 리더십 수업참여, 형제자매 수, 성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성별은 여학생이 186명(89.9%), 남학생이 21명(10.1%)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68명(32.9%), 2학년 64명(30.9%), 3학년 46명(22.3%), 4학년 29명(14.0%)이었으며, 평균인터넷사용시간은 1시간 이내 사용자가 36명(30.4%)으로 가장 많았다. 동아리 활동여부는 122명(58.9%)이 참여하고 있으며, 리더십이나 학교적응 프로그램 참여는 104명(50.2%)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 자매 수는 1명의 형제 자매가 있는 군이 106명(51.2%) 가장 많았고, 학업성적은 3.0-3.9인 군이 142명(68.6%)로 가장 많았다(Table 1).

### 3.2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대학생활 적응의 평균값은 Table 2와 같다. 대학생활 적응은 점수 범위가 1-45점으로 전체 평균값은  $30.99 \pm 4.39$ 로 나타났다( $p < .001$ ). 하위영역으로 교수와의관계 점수 범위가 1-25점으로 평균값은  $16.26 \pm 8.09$ 점, 교우와의관계의 점수범위가 1-20점으로 평균값은  $14.79 \pm 2.34$ 점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의 점수 범위는 1-115점으로 전체 평균값은  $81.39 \pm 9.80$ 으로 나타났다( $p < .001$ ). 하위영역으로 행동적 전략은 점수범위가 1-45점으로 평균값은  $33.22 \pm 4.60$ 점이었으며, 인지적 전략은 점수범위가 1-70점으로 평균값은  $48.16 \pm 6.43$ 으로 낮게 나타났다. 감성지능은 점수범위는 전체 1-65점으로 전체 평균값은  $46.28 \pm 5.08$ 로 나타났다( $p = .005$ ). 하위영역으로 자아감성인식능력의 점수범위가 1-10점으로 평균값은  $7.57 \pm 1.30$ , 자아 감성조절능력의 점수범위가 1-15점으로 평균값은  $9.99 \pm 1.75$ 으로 나타났으며, 자아동기부여능력의 점수범위는 1-15점으로 평균값은  $11.18 \pm 1.90$ 이며, 대인관계유지능력의 점수범위는 1-25점으로 평균값은  $17.54 \pm 2.58$

점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점수 범위는 1-65점으로 전체 평균값은 39.25±5.79로 나타났다( $p=.002$ ). 하위영역으로 과제수준선호의 점수범위가 1-20점으로 평균값은 10.14±3.07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자기조절 효

능감의 점수범위가 1-25점으로 평균값은 16.90±3.19로 나타났고, 자신감의 점수범위가 1-20점으로 평균값은 12.19±3.16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07)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21	10.1
	Female	186	89.9
Grade	Freshman	68	32.9
	Sophonmore	64	30.9
	Junnior	46	22.2
	Senior	29	14.0
Internet use on a day	1hrs>	63	30.4
	1-2hrs	49	23.7
	2-3hrs	40	19.3
	3-4hrs	23	11.1
	4hrs<	32	15.5
Club activities	Yes	122	58.9
	No	85	41.1
Participation in a leadership and school adjustment program	Yes	104	50.2
	No	103	49.8
Number of siblings	Alone	7	3.4
	1	106	51.2
	2	70	33.8
	3 ≤	24	11.6
Academic credit	2.0-2.9	36	16.0
	3.0-3.9	142	68.6
	4.0 ≤	32	15.5
Total		207	100.0

Table 2. Differences in the subjects' self-leadership,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Variables	Categories	M±SD	Range	t/F	p
Adjustment to college life	Relations with the professors	16.26±8.09	1-25	101.439	.000
	Relations with the friends	14.79±2.34	1-20		
	Total	30.99±4.39	1-45		
Self-leadership	Behaviral strategies	33.22±4.60	1-45	2.292	.000
	Cognitive strategies	48.16±6.43	1-70		
	Total	81.39±9.80	1-115		
Emotional intelligence	Ability of recognizing one's own sensibility	7.57±1.30	1-10	1.984	.005
	Ability of controlling one's own sensibility	9.99±1.75	1-15		
	Ability of motivating oneself	11.18±1.90	1-15		
	Ability of maintain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17.54±2.58	1-25		
	Total	46.28±5.08	1-65		
Academic self-efficacy	Task level preference	10.14±3.07	1-20	1.636	.002
	Self-regulated efficacy	16.90±3.19	1-25		
	Self-confidence	12.19±3.16	1-20		
	Total	39.25±5.79	1-65		

**Table 3.** The subjects' self-leadership,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Self-leadership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djustment to college life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79.09±12.91	4.343	.038	45.47±5.00	.027	.870	37.76±5.62	-1.247	.215	31.80±5.22	.901	.369
	Female	81.65±9.40			46.38±5.10			39.41±5.80			30.89±4.29		
Grade	Freshman	83.69±8.98 <sup>b</sup>	8.231	.000	46.48±5.16 <sup>a</sup>	3.375	.019	39.98±5.68	.545	.652	31.00±3.99 <sup>b</sup>	2.128	.098
	Sophonmore	79.34±8.96 <sup>a</sup>			46.20±4.74 <sup>a</sup>			38.93±4.90			30.71±5.01 <sup>a</sup>		
	Junnior	77.50±10.20 <sup>a</sup>			44.73±5.44 <sup>a</sup>			38.91±5.84			30.23±4.01 <sup>a</sup>		
	Senior	86.72±9.46 <sup>b</sup>			48.48±4.38 <sup>b</sup>			38.75±7.64			32.75±4.14 <sup>b</sup>		
	Duncan's	a<b			a<b						a<b		
Internet use on a day	1hrs>	82.28±9.95	1.774	.135	47.09±4.66 <sup>b</sup>	1.981	.099	39.17±5.87 <sup>a</sup>	1.811	.128	31.20±32.17	1.172	.324
	1-2hrs	83.79±9.96			46.95±5.74 <sup>b</sup>			40.69±5.95 <sup>b</sup>			31.08±32.50		
	2-3hrs	79.47±9.67			46.02±4.39 <sup>a</sup>			39.17±5.40 <sup>a</sup>			31.67±33.01		
	3-4hrs	80.39±6.19			45.95±4.64 <sup>a</sup>			39.39±3.65 <sup>a</sup>			31.04±33.18		
	4hrs<	79.09±10.18			44.25±5.59 <sup>a</sup>			37.18±6.72 <sup>a</sup>			29.53±31.09		
	Duncan's				a<b			a<b					
Club activities	Yes	81.99±10.05	1.047	.296	46.28±5.15	.275	.601	39.66±5.63	1.230	.220	31.36±4.52	1.456	.356
	No	80.54±9.43			46.29±5.02			38.65±6.00			30.45±4.16		
Participation in a leadership and school adjustment program	Yes	81.62±9.42	.317	.574	46.32±5.04	.105	.916	40.09±5.30	2.127	.035	31.01±4.33	.095	.840
	No	81.16±10.22			46.25±5.15			38.39±6.10			30.96±4.37		
Number of siblings	Alone	83.28±3.98	.299	.826	47.85±3.33	.618	.604	41.00±5.16	.375	.777	31.14±4.14	.494	.687
	1	81.80±10.02			46.08±5.28			38.92±5.71			31.33±4.25		
	2	81.00±9.75			46.10±4.49			39.48±6.11			30.51±4.23		
	3 ≤	80.20±10.42			47.29±6.22			39.50±5.22			30.83±5.53		
Academic credit	4.0 ≤	85.62±9.23 <sup>b</sup>	4.734	.010	46.71±4.70	.159	.853	43.21±6.60 <sup>b</sup>	7.545	.000	32.34±4.92	3.097	.028
	3.0-3.9	81.14±9.68 <sup>a</sup>			46.25±5.30			38.81±5.35 <sup>a</sup>			30.84±4.33		
	2.0-2.9	78.39±9.81 <sup>a</sup>			46.03±4.57			37.27±5.78 <sup>a</sup>			30.00±3.60		
	Duncan's	a<b						a<b					

###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대학생활 적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대학생활 적응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셀프리더십은 성별(F=4.34, p=0.03), 학년(F=8.23, p<0.00)과 성적에서(F=4.73, p=0.01)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에서도 셀프리더십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1학년과 4학년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이 높은 군이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은 학년(F=3.37,

p=0.01)과, 평균인터넷사용시간(F=1.98, p=0.09)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사후분석에서도 감성지능은 저학년보다 4학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사용시간이 1시간 이내인 군이 2-3시간이상인 군 보다 감성지능이 높게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는 성적(F=7.54, p<0.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성적이 높은 군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대학생활 적응에서는 학년(F=2.12, p=0.09)과 성적(F=3.09, p=0.02)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학년에는는 1학년과 4학년이 대학생활 적응이 높았으며, 성적에서는 성적이 높은 군이 대학생활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4.** Correlations among the subjects' self-leadership,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Variables	1	2	3	4
		r(p)	r(p)	r(p)
1. adjustment to college life	1			
2. Self-leadership	.511 <sup>(**)</sup> (.000)	1		
3. Emotional intelligence	.369 <sup>(**)</sup> (.000)	.587 <sup>(**)</sup> (.000)	1	
4. Academic self-efficacy	.181 <sup>(**)</sup> (.009)	.471 <sup>(**)</sup> (.000)	.261 <sup>(**)</sup> (.000)	1

\*\*= p&lt;.001, \*p&lt;.005

**Table 5.** The effects of the subjects' self-leadership,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their adjustment to college life

	B	SE	Beta	t/F	p-value
Constant	11.381	2.73		4.155	.000
Self-leadership	.128	.036	.487	6.013	.000
Emotional intelligence	.089	.064	.103	1.386	.167
Academic self-efficacy	-.057	.051	-.075	-1.109	.269
R <sup>2</sup> =.273, Adj R <sup>2</sup> =.262, p<.001					

### 3.4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셀프리더십은 대학생활 적응 간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511$ ,  $p<.001$ )로 나타났다. 또한 감성지능은 대학생활 적응과 양의 상관관계( $r=.369$ ,  $p<.001$ )로 나타났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 적응과 양의 상관관계( $r=.181$ ,  $p=.009$ )로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은 감성지능과 양의 상관관계( $r=.587$ ,  $p<.001$ )로,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양의 상관관계( $r=.471$ ,  $p<.001$ )로 나타났으며, 감성지능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양의 상관관계로( $r=.261$ ,  $p<.001$ )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셀프리더십,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Table 4).

### 3.5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적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 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잔차의 독립성 검증인 Durbin-Watson Test를 실시한 값은 2.121로 나타나 수용기준에 부합하여 자기 상관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차한계변수(Tolerance) .547로 1.0이하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지수가 1.829로 10을 넘지 않아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예측 변수로 하여 대학생활 적응을 설명하는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25.417$ ,  $p<.001$ ), 대학생활 적응을 수정된 R<sup>2</sup>는 26.2% 설명하였다. 셀프리더십이( $\beta=.487$ ,  $p<.001$ ), 감성지능( $\beta=.103$ ,  $p=.167$ )이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

적 자기효능감,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셀프리더십과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을 26.2%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으로 학년과 셀프리더십, 감성지능으로 나타났다. 이는 Han과 Kim의 연구[26]에서와 비슷한 결과로 확인 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은 1학년과 4학년에서 높게 나타났고, 성적에서는 성적이 높은 군이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27]연구에서도 학년에 따라 셀프리더십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별, 단계별 교육을 통해 셀프리더십이 높아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감성지능의 차이는 저학년 보다는 고학년에서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사용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사용시간이 적을수록 감성지능이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감성지능이 낮게 나타나 선행연구[27]의 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사용시간을 조절하지 못하는 자기 의지력 부족이나 정서적 상태가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인터넷사용시간과 성적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인터넷사용시간이 적은 군과 성적이 좋은 군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Park의 연구와 일치하였다[28]. 또 다른 선행연구[29]에서는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이 가지는 지식과 능력이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결과로 평가 하여 본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추후 더 많은 변수를 추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중요 변수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셀프리더십의 점수 범위는 1-115점으로 전체 평균값은 81.39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Manz[7]의 도구를 사용하였지만 다른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는[29] 5점 만점에 3.44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평균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는 행동적 전략의 점수범위가 1-45점으로 평균값은 33.22점 이었으며, 인지적 전략의 점수범위는 1-70점으로 평균값은 48.16점으로, 행동적 전략이 인지적 전략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30]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 연구 대상자에게는 인지적 전략부분의 셀프리더십 즉,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계획을 세우고 솔루션수법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감성지능에서는 점수범위가 1-65점으로 전체 평균값은 46.28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의 자아 동기 부여능력의 평균값은 11.18점, 대인관계 유지능력의 평균값은 17.54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자아감성 조절능력의 평균값은 7.57점으로 낮게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31]와 유사하였다. 이런 결과를 볼 때 간호 대학생의 감성지능은 특히, 감성지능의 하위영역인 자아감성 조절능력 즉, 자신의 느낌을 정확히 알고 파악하고 신축성 있고 융통성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점수 범위는 1-65점으로 전체 평균값은 39.25점으로 나타났다. Kim과 Park의 연구[32]에서는 5점 만점기준으로 3.21점으로 중간점수를 나타내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하위영역에서는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과제수준선호 순으로 나타났으며, 과제 수준선호의 평균점수는 낮아 선행연구[32]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어려운 과제에 대한 도전 및 수행이 낮은 것으로, 자신에 대한 기대치와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 내적동기 및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전략적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두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선행연구[33]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특히, 셀프리더십과 대학생활 적응은 높은 양의 상관관계로 셀프리더십이 높으면 대학생활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34]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30]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지 않아 추후 매개변수 등을 확인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련성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된다.

이 결과로 볼 때 간호 대학생이 대학생활 적응은 셀프리더십과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긍정적 감정을 활용하여 자신감이 증진되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여 대학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활적응을

26.2%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간호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한 영향요인인 셀프리더십 과 감성지능 역량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중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 되며, 이는 자신감과 도전의식, 리더십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학년별, 특성별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대학의 간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한 연구결과이므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보다 다양한 대학의 간호 대학생을 포함하여 대학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사회적, 환경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이들 변수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일부 시 지역 간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대상은 207명 이었다. 자료는 기술적 통계, t-tset, ANOVA, pearson correlation과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 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설명력은 26.2%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관련성에서는 셀프리더십은 학년과 성적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감성지능은 학년과 인터넷사용시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인터넷사용시간에서 차이가 있었고, 대학생활 적응에서는 학년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셀프리더십, 감성지능은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간호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셀프리더십, 감성지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간호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셀프리더십과 감성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추후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반복 및 개인 심리적 요인, 외부 환경적 요인에 대한 개입 및 그러한 변인들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대학생활 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연구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References

- [1] J. Liaschenko, E. Peter, "Nursing ethics and conceptualizations of nursing: Profession practice and work", *Journal of Advance Nursing*, vol. 46, no. 5, pp. 488-495, 2004.  
DOI: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4.03011.x>
- [2] I. H. Jung, B. C. Lim, "Students of factors affecting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Centering on students studying Dental Technology Daegu. Gyeongbuk are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3, no. 3, pp. 13-19, 2012.
- [3] K. H. Kim, "Correlations of stress-coping, humor sense, and adaptation to college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3, pp. 301-313, 201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03.301>
- [4] D. D. Kim, G. W. Song, Y. G. Kim,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anxie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 and college adjustment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 20, no. 14, pp. 283-299, 2014.
- [5] H. J. Park, I. S. Jang,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1, pp. 14-23, 2010.  
DOI: <https://doi.org/10.4040/jkan.2010.40.1.14>
- [6] E. S. Lee, E. J. Bong,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Academic self efficacy and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on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23, no. 2, pp. 107-114, 2017.
- [7] C. C. Manz, *Mastering self-leadership; empowering yourself for personal excellence*,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1998.
- [8] M. A. Park, "Self-leadership, Stress on clinical practice, and stress coping styles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 University, 2014.
- [9] Y. J. Lee,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level on campus-life satisfac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12.
- [10] H. J. Park,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1, no. 2, pp. 227-236, 2015.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5.21.2.227>
- [11] C. S. Wong, & K. S. Law,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vol. 13, no. 3, pp. 243-274, 2002.  
DOI: [https://doi.org/10.1016/S1048-9843\(02\)00099-1](https://doi.org/10.1016/S1048-9843(02)00099-1)
- [12] S. Duygulu, D. Hicdurmaz, I. Akyar, "Nursing students' leadership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Turkey", *Journal Nursing Education*, vol. 50, no. 5, pp. 281-285, 2011.

- DOI: <https://doi.org/10.3928/01484834-20110130-07>
- [13] A Bandura,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actice Hall, 1986.
- [14] S. J. Han,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 25, no. 50, pp. 559-566, 2013. DOI: <https://doi.org/10.7475/kjan.2013.25.5.559>
- [15] A. Y. Kim, I. Y. Park,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Scale, *Korean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vol. 39, no. 1, pp. 95-123, 2001.
- [16] Y. S. Lee, S. H. Park, J. K. Kim, "Nursing students' self-readership, self - 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college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6, pp. 229-240, 201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06.229>
- [17] Y. J. Oh, Predictors of college lif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7, pp. 307-317, 2017. DOI: <http://doi.org/10.14400/JDC.2017.15.7.307>
- [18] J. Y. Song,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freshmen's adaptation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12, pp. 335-345, 2017. DOI: <http://doi.org/10.5762/KAIS.2017.18.12.335>
- [19]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39, pp. 175-191, 2007. DOI: <https://doi.org/10.3758/BF03193146>
- [20] M. J. Kim, "An Inquiry into learner factors influencing the self-leadership development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7.
- [21] D. Golman, Emotional intelligence: Why it can matter more than IQ, New York: Bantam Books, 1995.
- [22] K. Y. "Chung, he Effect of dance education on emotional intelligenc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ans University Dance Major, 2005.
- [23] A. Bandura, "Self- 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 84, pp. 191-215, 1977. DOI: <https://doi.org/10.1037/0033-295X.84.2.191>
- [24] A. Y. Kim, "Development of standardized student motivation scales", *Korea Society for Education Evaluation*, vol. 15, no. 1, pp. 157-184, 2002.
- [25] E. S. Moon, "An exploratory study on the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 23, no. 1, pp. 153-167, 2002.
- [26] Y. S. Han, M. S. Kim, "Gender difference in self-leadership and its impact on the effectiveness of college Life", *Analysis of Research in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15, no. 2, pp. 215-233, 2010. DOI: <http://doi.org/10.18205/kpa.2010.15.2.003>
- [27] E. J. Shin, Y. S. Park,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14, no. 1, pp. 5636-5645, 2013. DOI: <https://doi.org/10.5762/KAIS.2013.14.11.5636>
- [28] E. Y. Park, "The impact of middle school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and personal relationships on school related adjust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kwandong University, 2015.
- [29] O.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 - leadership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9, pp. 6036-6043, 2015. DOI: <http://doi.org/10.5762/KAIS.2015.16.9.6036>
- [30] S. H. Han, H. S. Yu, "College women's self-leadership, stress of clinical practices and self disclosure in an a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1, pp. 131-140, 2012.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2.18.1.131>
- [31] O. S. Lee, M. O. Gu, M. J. Kim, "Influenc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in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 pp. 380-388,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1.380>
- [32] S. H. Kim, S. Y. Park,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3, pp. 1577-1565, 201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4.15.3.1557>
- [33] Y. S. Lee, S. H. Park, J. K. Kim,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self 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college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6, pp. 229-240, 201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06.229>
- [34] S. O.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9, pp. 6036-6043,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9.6036>

김 종 임(Jong-IM Kim)

[정회원]



- 2008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기본간호, 간호교육, 노인간호